



#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심정신<sup>1</sup> · 이영숙<sup>2</sup> · 오숙희<sup>3</sup>

조선간호대학교<sup>1</sup>, 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sup>2</sup>, 전북과학대학교 간호과<sup>3</sup>

##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 in the College Students

Shim, Chung Sin<sup>1</sup> · Lee, Young-Sook<sup>2</sup> · Oh, Suk-Hee<sup>3</sup>

<sup>1</sup>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sup>2</sup>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RINS, Gwangju

<sup>3</sup>Jeonbuk Science College of Nursing, Jeongeup,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sexual assault awareness and permissible limits in the college students. **Methods:** With a structured survey, a sample of 756 college students who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completed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Results:** The result showed that gender-role stereotype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gender and age, while awareness of sexual assault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gender, age, and location of residence. The permissible limits in sexual assault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gender,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location of residence.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of sexual assault, gender-role stereotypes, and permissible limits of sexual assault. **Conclusion:** The result will provide preliminary data and strategies to develop sexual assault prevention programs.

**Key Words:** Gender, Stereotypes, Assault, Awareness, Permissible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발표에 따르면 여성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피해자 발생건수가 2005년 53건에서 2008년 63건으로 약 19%가 증가하였고(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9). 성폭력 상담건수 중 성폭력 피해자의 약 97%가 여성이며 64.4%가 성인피해자로 나타났는데(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 연령별로는 20세 이상인 여성이 55.7%로 과반수 이상이 2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2006). 이러한 성폭력의 증가는 대중매체를 통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 가능해지고 올바르지 않은 성적 가치관의 무분별한 유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Park, 2010)과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 남성과 여성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서로간의 잘못된 오해들로 생긴 인지도(Koh, 2007)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하여도 수치심 때문

**주요어:** 성역할, 고정관념, 폭력, 인지도, 허용도

**Corresponding author:** Shim, Chung Sin

Chosun Nursing College, 309-2 Pilmundae-ro, Dong-gu, Gwangju 501-825, Korea.  
Tel: +82-62-231-7327, Fax: +82-62-232-9072, E-mail: mwsim@hanmail.net

- 본 연구는 2011년 조선간호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Chosun Nursing College, 2011.

투고일: 2012년 4월 26일 / 수정일: 2012년 6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8일

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여고생에서부터 입산부에 이르기까지 연쇄 성폭행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www.newskbs.co.kr, 2010). 그러나 성폭력 경험은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활태도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그 피해 당사자들이 겪는 후유증이 대단히 심각하며 사회불안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Kim, 2002; Nam, 2004)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여성건강 간호측면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정서적 안정과 좋은 성역할의 모델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직업선택이나 성역할,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 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Lee, 2007). Kim과 Kim (2008)은 대학생 자신의 성에 대해서 어떠한 성태도를 갖고 있는냐는 성행동에 영향을 주어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욱 개방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은 학내에서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 이성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성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고 반대로 학업성취가 저하되거나 이성에 대한 불신 자아존중감, 성적 충동과 욕구의 조절문제,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Kim & Kim, 2001).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에 성이 개입되어 있는 범죄로서(Nam, 2004), 이성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생의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Koh, 2007). 의외로 성폭력은 데이트 중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강요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주로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Ackard & Neumark-Sztainer, 2002). 또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의 연구에서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행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am, 2003).

성폭력 피해경험 연구에서도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ang, 2002). 이는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결국 성폭력 발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성역할 성폭력 인식도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인지는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개념들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 데이트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Kang,

2009).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폭력에 허용적이거나 폭력을 정당화할수록 성폭력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Burt, 1983)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를 벗어나 성인으로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의 올바른 개념 정립은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강간통념수용도(Chang & Cho, 2001), 성역할 고정관념(Shin, 1997), 성적 자기주장성(Park, 2010),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Lee & Lee, 2005; Nam, 2003), 성폭력 허용도(Lee, 2007) 등이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혔다. 이렇듯 다양한 요인들이 성폭력 발생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 분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지식과 태도(Song, 2003), 강간통념 수용도와 성역할 고정관념(Oh, Kang, & Kim, 2010) 등 2편에 불과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 발생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정도의 차이를 검정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정도의 차이를 검정한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정도의 차이를 검정한다.
-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를 일반적 특성별로 비교하고, 이에 따른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5개의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전공과 관련 없이 무작위 임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담당교수의 허락 및 협조 하에 연구자가 직접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문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회수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처리됨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는 자가보고식으로 설문지에 응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796부 중 7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결측치가 많거나 신뢰성이 의심되는 2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756부(97.1%)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3. 연구도구

#### 1)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남녀의 역할구분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신념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 (1991)이 개발한 성역할 고정관념 척도는 5개요인 총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발당시 연구에서 신뢰도는 .70~.83이었으며, Koh (2007)가 18개 문항을 추가하여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적, 사회적,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 된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Koh (2007)의 연구에서 연구 신뢰도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의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 2)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인지도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그 행위가 성폭력 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이며, 성폭력 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ugarman, Aldarondo와 Boney-McCoy (1996)이 개발하고 Nam (2003)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10개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Nam (200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5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3)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허용도는 성을 매개로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어느 정도까지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Nam, 2003),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Foo와 Margolin (1995)이 개발한 Justification of Violence Scale (JVS)를 Chang과 Cho (2001), Park (2007)의 연구에서 번안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총 10개 문항, 4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oo와 Margolin (1995)과 Chang과 Cho (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Park (200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을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을 하였고, 유의수준은  $p < .05$ 로 정하였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는 t-test, ANOVA로 비교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Dunnett's T3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테이트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s coefficients를 구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허용도에 관한 측정도구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남학생이 272명(36.0%), 여학생이 484명(64.0%)이었으며, 연령은 평균 19.68세였으며, 19세 이하가 425명(56.2%)이었고, 그 다음 순으로 20~22세가 286명(37.8%), 23세 이상이 45명(6.0%)이었다.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있는 경우는 665명(88.0%), 편부모는 62명(8.1%), 혼합가족은 27명(3.6%), 부모가 없는 경우는 2명(0.3%)으로 조사되었다. 현거주지는 중소도시에 사는 경우가 536명(70.9%), 시골은 161명(21.3%), 광역시는 59명(7.8%) 순으로 조사되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373명(49.3%), 없는 경우는 383명(50.7%)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385명(50.9%), 2학년이 295명(39.1%)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t=7.140, p=.001$ ), 나이( $F=7.569, p=.001$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 로 사후검정 한 결과, 나이는 23

세 이상이 19세 이하보다 성역할 고정관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t=-4.872, p=.001$ ), 나이( $F=4.667, p=.010$ ), 현거주지( $F=3.234, p=.04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로 사후검정 한 결과 나이에 19세 이하가 23세 이상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거주지에 대한 Scheffé로 사후검정 한 결과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3).

###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폭력 허용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t=4.839, p=.001$ ), 가족관계( $F=7.348, p=.001$ ), 현거주지( $F=3.229, p=.040$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허용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에서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é로 사후검정 한 결과 혼합가족이 편부모인 경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272 (36.0)
	Female	484 (64.0)
Age (year)		19.68±1.54
	≤ 19	425 (56.2)
	20-22	286 (37.8)
	≥ 23	45 (6.0)
Family type	Parent family	665 (88.0)
	Blended family	27 (3.6)
	Single parent family	62 (8.1)
	No- parent family	2 (0.3)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59 (7.8)
	City	536 (70.9)
	Country	161 (21.3)
Religion	Yes	373 (49.3)
	No	383 (50.7)
Grade	Freshmen	385 (50.9)
	Sophomore	295 (39.1)

**Table 2.** Comparison of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72	45.22±8.21	7.140	.001	
	Female	484	41.06±7.38			
Age (year)	≤ 19 <sup>a</sup>	425	41.77±7.78	7.569	.001	c > a
	20~22 <sup>b</sup>	286	43.16±7.92			
	≥ 23 <sup>c</sup>	45	46.13±8.36			
Family type	Parent family	665	42.43±7.93	0.513	.673	
	Blended family	27	43.40±9.30			
	Single parent family	62	43.50±7.58			
	No-parent family	2	45.00±4.24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59	42.71±8.42	1.822	.162	
	City	536	42.23±7.77			
	Country	161	43.59±8.25			
Religion	Yes	373	42.44±8.27	-0.382	.703	
	No	383	42.66±7.61			
Grade	Freshmen	385	42.40±7.74	-0.535	.593	
	Sophomore	295	42.71±8.14			

우보다 성폭력 허용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거주지의 집단 간에는 등분산이 가정되어 있지 않아 또는 두 군 간의 분산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Dunnett's T3로 사후검정한 결과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4).

5.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간의 상관관계

성폭력 인지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265$  ( $p < .001$ )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폭력 허용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129$  ( $p < .001$ )로 양의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폭력 허용도와 성폭력 인지도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r = -.206$  ( $p < .001$ )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5).

논 의

**Table 3.** Comparison of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72	37.67±7.59	-4.872	.001	
	Female	484	40.30±6.22			
Age(year)	≤ 19 <sup>a</sup>	425	39.89±6.48	4.667	.010	a > c
	20~22 <sup>b</sup>	286	38.96±7.06			
	≥ 23 <sup>c</sup>	45	36.91±8.42			
Family type	Parent family	665	39.42±6.81	0.227	.877	
	Blended family	27	39.11±7.05			
	Single parent family	62	38.75±7.31			
	No-parent family	2	41.00±9.89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59	37.49±7.12	3.234	.040	
	City	536	39.70±6.81			
	Country	161	38.90±6.81			
Religion	Yes	373	39.01±6.88	-1.391	.165	
	No	383	39.70±6.83			
Grade	Freshmen	385	39.64±6.49	1.139	.255	
	Sophomore	295	39.07±7.22			

**Table 4.** Comparison of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7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 or F	p	Scheffé
Gender	Male	272	16.58±7.80	4.839	.001	
	Female	484	19.68±8.79			
Age (year)	≤ 19	425	17.55±8.59	0.180	.835	
	20~22	286	17.85±7.98			
	≥ 23	45	18.15±7.66			
Type of family	Parent family <sup>a</sup>	665	17.54±8.02	7.348	.001	b > c
	Blended family <sup>b</sup>	27	24.29±13.33			
	Single parent family <sup>c</sup>	62	16.20±6.85			
	No-parent family <sup>d</sup>	2	26.50±17.67			
Present residence	Metropolitan city	59	19.05±8.71	3.229	.040	
	City	536	17.21±7.98			
	Country	161	18.83±9.05			
Religion	Yes	373	18.02±8.34	1.056	.291	
	No	383	17.38±8.26			
Grade	Freshmen	385	18.08±8.81	1.272	.204	
	Sophomore	295	17.31±7.72			

**Table 5.** Correlation of Gender-role Stereotyped Behavior, Awareness and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N=756)

Variables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1		
Awareness of Sexual Violence	-.265 (< .001)	1	
Permissiveness of Sexual Violence	.129 (< .001)	-.206 (< .001)	1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시도 되었다.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고, 연령집단이 높은 집단이 낮은 연령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대학시기를 거치고 있으면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으로 더 개방적이며, 연령이 높은 사람이 보수적인 기존 세대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다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Park, 2010)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선행연구(Koh, 2007; Oh et al., 2010)에서도 남자대학생이 더 높은 점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강한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양성평등 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전통적인 남성역할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성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과 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 및 성별 분업(Lee, 1993)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화적 특성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높하게 되고 성적인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전통적인 성 각본은 결국 여성들을 성적 피해자가 되도록 취약하게 만든 것이다(Byers, 1996).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차별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교육의 교육내용, 매스컴 등에 의하여 끊임없이 재생산되기 때문에(Min, 2001) 가정, 학교, 사회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학생의 성폭력 인지도는 남자대학생이 여자대학생보다, 높은 연령집단이 낮은 연령집단보다 낮고, 현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대학생

이 여자대학생보다 성폭력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는 Chang (2002)과 Nam (2003)의 연구와 일치하며 성폭력 인식도가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Nam, 2003), 실제로 사회화 과정에서 폭력을 많이 접하는 남성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진정한 폭력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Riggs & O'Leary, 1996). 이는 성폭력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성폭력이 발생되었을 때, 여성의 행동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적 특성과의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더불어 높은 연령집단이 성폭력 인지도가 낮다는 것은 높은 연령집단이 낮은 연령집단에 비해 데이트 경험이나 데이트를 경험하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한다면, 애무나 키스 행위 등은 애정이나 관심으로 해석하여 성폭력이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거주지에 따라 성폭력 인지도에 영향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사후분석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추후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차이점을 반영하는 교육내용으로 더욱더 강조해야 할 것이고, 성폭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혼합가족집단이 한 가족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 상황에서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에 대해 묵인할 때 성폭력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Burt, 1983)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허용되고, 여성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믿게끔 사회화

되어있기 때문이다(O'Keefe & Treister, 1998). 따라서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여자대학생에 대한 성폭력 피해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폭력 사용의 가능성은 가정에서의 적절한 양육태도와 부부로서의 역할이 성폭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Chang과 Cho (2001)의 연구에서는 부모관계에서 부모가 없는 경우 폭력허용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는 가족관계에서 혼합가족이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혼합가족을 이루기 전에는 두 가족 간의 정서적 교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만남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간의 상관관계는 중등도 이하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 인지도가 낮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는 여성이 추후 쉽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 Jang과 Lee (2011)의 연구에서 성태도와 성허용성이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 결과는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허용성이 높다고 한 결과와 본 연구의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와 상관관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성폭력인지도가 낮을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낮출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사례 및 역할극 중심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성별,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 구성에 차별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였으며, 이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학생들이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조할 것이다.

##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정립을 위해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와 성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방법은 G시에 소재한 5개의 2년제 대학 남녀 대학생 756명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자가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ver. 1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차이는 성별, 나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인지도는 성별, 나이, 현거주지에 따라 성폭력 허용도는 성별, 가족관계, 현거주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인지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성폭력 허용도와 성역할 고정관념간, 성폭력 인지도간의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국내외에서 나타나는 높은 성폭력 피해 비율을 볼 때 예방을 위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잠재적 피해자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교육은 근본적인 예방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지며,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다양화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성폭력 인식도 등 성폭력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다양한 간호중재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과 교육으로 예방적 성교육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개지역 대학의 학생들로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단 간 심층적인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성폭력 허용도가 대학생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인식과 일반적인 인식이 부합되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성 친구 유무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성폭력 경험과 이성 친구를 고려하여 성폭력 허용도의 영향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의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어 질적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Ackard, D. M., & Neumark-Sztainer, D. (2002).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Child Abuse and Neglect, 26*, 455-473. [http://dx.doi.org/10.1016/S0145-2134\(02\)00322-8](http://dx.doi.org/10.1016/S0145-2134(02)00322-8)
- Burt, M. R. (1983). Justifying personal violence: A comparison of rapists and the general public. *Victimology, 8*, 131-150.

- Byers, E. S. (1996). How well does the traditional sexual script explain sexual coercion? Review of a program of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8*, 7-25. [http://dx.doi.org/10.1300/J056v08n01\\_02](http://dx.doi.org/10.1300/J056v08n01_02)
- Chang, H. S., & Cho, H. G. (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79-204.
- Chang, Y. K. (2002). *A study on date rape experienc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Foo, L., & Margolin, G. (1995). A multivariate investigation of dating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351-377. <http://dx.doi.org/10.1007/BF02110711>
- Jang, S. H., & Lee, S. H. (2011). Self-esteem,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riend's sexual attitude and degree of sexual permissivenes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17*, 395-406. <http://dx.doi.org/10.4069/kjwhn.2011.17.4.395>
- Kang, H. S. (2009). *Model construction of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oh, H. L. (2007).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im, D. I. (1991).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3): Aspect of social psychology, sociology sexual*. Seoul: Soomonsa.
- Kim, Y. M., & Kim, H. O. (2001). Psychological and sexual violence in dat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4), 185-199.
- Kim, N. Y.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xual violence severity and negative life attitude on the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H., & Kim, K. S. (2008).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 123-138.
-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2007). *Counseling statistics*. Retrieved February 4, 2008, from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
- Kwon, S. H., Kim, S. N., Park, C. H., Sin, Y. S., Sung, M. H., Ahn, S. H., et al. (2006). *Women and health*. Seoul: Soomonsa.
- Lee, H. Y. (2007).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angwon.
- Lee, S. H. (1993). *Study on the elementary school child's fixed idea of a sex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 419-436.
- Min, K.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sex role stereotype and gender, parenting type and experience with opposite sex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09). *2010 Report about sexual violence center and institution*. Seoul, Korea.
- Nam, H. M. (2003).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m, M. J. (2004). *Study on rape myths acceptance by sex role identity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Oh, S. H., Kang, H. S., & Kim, Y. H. (2010). Analysis of rape myths acceptance and gender role stereotype among female and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4*, 249-257.
- O'Keefe, M., & Treister, L. (1998).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4*, 195-223. <http://dx.doi.org/10.1177/1077801298004002005>
- Park, M. R. (2007).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attitudes, impulsivity,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 Park, S. M. (2010). *The effects of rape myth and date violence tolerance on the sexual assertiveness of college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Daejeon.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http://dx.doi.org/10.1177/088626096011004005>
- Shin, S. J. (1997). A study on the date rape propensity and countermeasures against date rape of male college students-Focused on the male college students in Daegu.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2*, 181-211.
- Song, Y. S. (2003).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sexual violence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 444-452.
- Sugarman, D. B., Aldarondo, E., & Boney-McCoy, S.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 313-337.



### 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While the studies of dating violence,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assertiveness of college students have been conducted,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ir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sexual violence awareness and permissiveness.

■ **What this paper adds**

We found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awareness of sexual assault, gender-role stereotypes, and permissible limits of sexual assault.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College sexual education program is expected enhance gender equity consciousness reducing gender role stereotyped behavior and contribute to its own development focusing on the play role and case which can raise awareness of sexual violence.